



© Linda Nylind/Frieze



아시아의 새로운 아트 허브, 서울

아시아 미술시장의 새 거점은 한국이다. 2021년에 발표된 아트넷 인텔리전스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은 향후 10년간 세계 예술시장을 선도할 도시 톱 7에 올랐다. 세계 3대 아트페어 '프리즈'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고, 글로벌 갤러리들이 앞다퉀 서울에 분점을 내는 것 역시 '아트 허브 서울'의 근거다. 이런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올해 서울 아트 신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7가지를 꼽았다.

According to a recent Artnet Intelligence Report, Seoul is one of seven cities expected to lead the global art market over the next decade. With respected art fair Frieze set to open this year in Seoul and global galleries scrambling to establish themselves in Korea's capital, the city is indeed becoming a global art hub. Here is a collection of seven events, trends and news relevant to Seoul's art scene in 2022.



© Casey Kubaugh/Frieze

7 Big Art Issues in Korea

더 많은 내용은 디지털 매거진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digital magazine for more information.



1. 갤러리 단자와 바그너부스, 프리즈 런던 2021
Galerie Tanja Wagner, Frieze London 2021
2. P21에서 열린 최하늘 개인전 <SIAMSE> 전경
Ha-neul Choi, the installation SIAMSE, at P21
3. 프리즈 뉴욕 2021 전경
Frieze New York 2021
4. 올라프 엘리아슨, <시각적 조정>, 2017
Olafur Eliasson, Visual mediation, 2017



Photo: Jens Zahle © 2017 Olafur Eliasson

6 New Artists Selected by Curators

큐레이터들이 뽑은 한국 신진 아티스트

WRITTEN BY DONG-SUN AN

박지형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
Ji-hyung Park, Curator,
This Weekend Room

박신영
박신영(1987년생)에게 낯선 곳으로의 여행과 이동은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동력원이다. 타지에서 발견한 독특한 색감과 질감의 사물, 인물, 풍경은 풍환적이고 촉각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가 되어 보는 이를 현실과 가상,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로 인도한다. 모노타이프 판화와 잉크 드로잉을 통해 이국적인 감각을 구현하는 그의 행보를 주목할 만하다.



<디스스노우 위드 인 옥토퍼스>, 2018
The Snowman with an Octopus, 2018

Shin-young Park
Few artists possess Shin-young Park's (b. 1987) effortless ability to translate personal memories into a unique visual language. For Park, traveling to and moving around unfamiliar places is a driving force for her creative efforts. She takes us to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imagination,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박수지
(독립 큐레이터)
Su-ji Park,
Independent Curator

이미래
이미래(1988년생)는 물질에 순정적이다. 그의 조각은 인간만큼이나 더럽고 짐작거리는데, 그만큼 거짓이 없다. 이미래는 자신이 조합한 물질이 드러낼 수 있는 감정에 한계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그의 조각은 울음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촉각적이고 감정적일 수 있다. 이미래는 진짜로 보려고 하고, 웬만해서는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래-캐리어즈> 전시 현장, 2020. 아트선재센터
© 2020. 아트선재센터. 사진: 김연재
A view of the installation Carriers, by Miree Lee, 2020. Art Sonje Center
© 2020. Art Sonje Center. Photo: Yeon-je Kim

Miree Lee
Miree Lee (b. 1988) approaches materials with a sense of purity. Her sculptures are as dirty and as messy as humans themselves, but they are also just as honest. Lee chooses not to limit the feelings that can be expressed via the materials she uses, and her sculptures are at once both tactile and emotional because they lie outside the realm of what is "right."

노두용
(갤러리 '실린더' 디렉터)
Doo-yong Noh, Director,
Cylinder Art Gallery

임재균
임재균(1994년생)의 조각을 보면 바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축과 함께 그것들이 바닥에 뿌리를 내 조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듯하다. 불현듯 깜박거리는 디지털 스크린의 오류처럼 가끔씩 발생하는 '어떤 침투는 그것이 누적되면서 왜 타격감 있게, 이미지의 균형을 깨뜨린다. 최근 선보였던 작업 <Reformatting> (2021년)과 <fickle-side down> (2021년)에서 그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리포매팅>, 2021
Reformatting, 2021

Jae-gyun Lim
Looking at the sculptures of Jae-gyun Lim, (b. 1994), it is as if they take root in the ground beneath them, rising perpendicularly from the floor. The error messages that flicker sporadically across the digital screens of his installations cut through the safety and harmony of the images, building up tension in a striking way. Lim's artistic identity continues to evolve — we can see this in two of his recent works, *Reformatting* (2021) and *fickle-side down* (2021).

최인선
(독립 큐레이터)
In-sun Choi,
Independent Curator

람한
람한(1989년생)은 서울에 기반을 둔 디지털 페인터다. 오래된 팝, 하위문화에 관심이 많고 기억에 남는 사물과 장면을 호출하여 가상 현실 속 판타지를 실험한다. '실리적 실체'의 또 다른 개념이 되어버린 디지털아트에서 람한의 창의적인 황홀감은 디지털이라는 태생에 그 힘이 있다. 디지털의 매끈함보다 몽환적인 동화가 떠오르고, 전자 음향보다 나무로 만든 피리 소리가 떠오르는 이유는 작가 고유의 깊은 사색이 있기 때문. 오프 버튼을 누르면 암흑으로 사라져버리는 디지털아트의 속명도, 람한의 서사 안에서 숨 멎지 않고 피어오른다.

Han Ram
Han Ram (b. 1989) is a Seoul-based digital artist who explores retro pop and subcultures, bringing objects and scenes from his memories into his work, and playing with fantasy concepts within his virtual realities. Thanks to Han's contemplative approach, his works conjure up the mood of dream-like fairytales rather than the usual sleekness of the digital and evoke the sound of wooden flutes rather than electronic music. In Han's artistic world, digital art blooms endlessly.



<키스>, 2021
Kiss, 2021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엔딜링' 디렉터)
In-seon Kim, Director,
Willing N Dealing

남진우
남진우(1985년생)는 대왕오징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소설, 성경, 대중 만화 등 다양한 문화적 레퍼런스를 활용하면서 독특한 세계관을 그려왔다. 어릴 적 보던 전쟁물에서 전형적인 주인공 로봇과 악당으로 분한 괴물과의 전투 신을 회상하며 늘 패배하고 미움을 받는 괴물의 모습에 자신을 이입한 것이다. 남진우는 평면 회화뿐 아니라 콜라주 및 조각으로 재구성하거나 부조의 형식을 차용하면서 무대적 화면을 조성해 시간적 요소를 개입시키는 등 회화 형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임그리진 영웅>, 2021
Twisted Hero, 2021

Jin-u Nam
By adopting an image of a giant squid for himself, Jin-u Nam (b. 1985) manifests a unique worldview, alluding to novels, the Bible and popular cartoons. He recalls a battle scene he saw on *Power Rangers* as a child between a typical robot and a villainous monster and identifies with the monster, who he recalls as being ever hated and defeated. Aside from painting, Nam creates works in mediums including collage and sculpture.

최수연
(P21 "코닉 서울" 디렉터)
Soo-yeon Choi, Director,
P21 and König Seoul

최하늘
매체와 장르의 혼종이 평범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최하늘(1991년생)은 자신을 조각가라 칭하며 조각으로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을 의상하고 내일에 대해 질문한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쿼어 작가로서 우회적 이기보다는 솔직한 화법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자신을 드러냄에 망설이지 않는다.

Ha-neul Choi
Referring to himself as a sculptor — at a time when mixing media and genres is commonplace in art — Ha-neul Choi (b. 1991) expresses skepticism about the present and asks questions about tomorrow in a way that can only be expressed through sculpture. A queer artist living in conservative Korean society, Choi chooses not to approach issues indirectly but, through his art, to vocally ponder a future in which diversity is accepted.

P21에서 열린 최하늘 개인전 <SIAMESE> 전경
A view of the installation SIAMESE, by Ha-neul Choi, at P21

